

lsn

부정의 논리적 구조: 한국 철학적 전통에서 본
이건원
한국 철학회

LOGICAL STRUCTURE OF NEGATION: FROM TRADITIONAL KOREAN PERSPECTIVE
LEE, GUN-WON
KOREAN PHILOSOPHICAL ASSOCIATION

요약

한글 표현에 나타난 부정의 사용의 애매성에서 부터 그 속의 어떠한 종류이던간의 특성을 귀납적으로 추론하는 것은 언어학적으로 중요하나, 부정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문제들 고찰하는 것이 또다른 측면으로 한글속의 부정을 조명하여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부정의 개념적 구조에서 부터 한글 표현에서의 부정의 사용을 이해하여 보려는 형식적 구조에서 시작하여서 한글 부정의 특성을 살펴 보고자 한다.

目次

1. 원초적인 부정 운용사
2. 양화부호와 부정의 결합사용
3. 집합론적인 부정의 고찰
4. 문장 부정과 동사 부정의 경우
5. 초월 부정과 기술 부정의 경우
6. 부정의 구문적 분배법칙
7. 결어

I. 원초적인 부정 운용사

박 중홍교수의 "부정의 연구(1950)"는 철학적인 부정의 연구이다. 여기서

는 한자리 문장 접속사로서 부정 운용사를 고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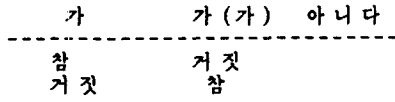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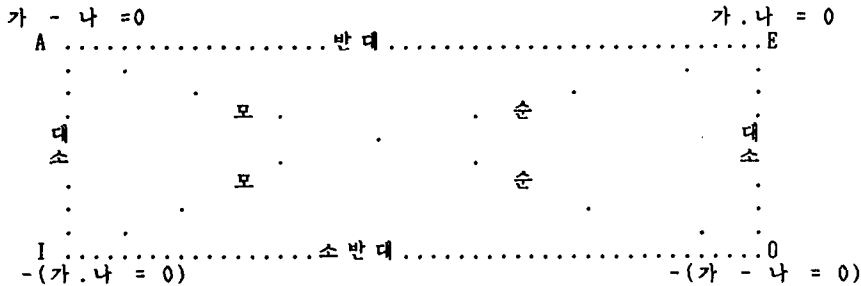


도표 1 cf. Tractatus Logico-philosophicus (Wittgenstein)

(도표 1)이 부정의 원초적인 부정 운용사이고 이 부정 운용사는 이중 부정의 법칙 --가 = 가 가 성립한다. 그러나 "없는 것이 없다"가 꼭 "있다"와 같다고만 보아지지 않는 것은 일상의 언어 사용과 부정 운용사 사이에 쉽게 발견되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한글 부정사의 애매성으로 고찰되었다.[2:263]

II. 부정의 양화사의 결합사용

부정이 양화사와 결합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모순 대당의 관관계로 나타난다. 이 경우에는 주어로 나타난 집합의 원소의 수가 고찰되어야 한다.



(도표 2) cf. Square of Opposition (Copi, I.M.)

이러한 '모든'과 '아니다'의 결합사용은 그 주어 집합의 수가 영이 아닌 한은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의 삼단논법Syllogismos만으로 충분히 다루어질 수 있으며, 주어 집합이 무한이 아닌 상수인 한은 진위치 판별의 연산법Al-khuwarizmi이 있다.(Bernay, P.)

III. 부정의 집합론적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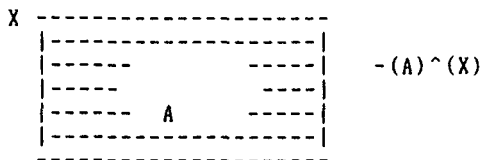
판단하여 술어로 표현하는 것은 술어로 표현된 것이 아닌 모순 개념의 부정까지 말하는 것이라고 함이 우리의 전통이다. 엄밀히 '음'이라고 하는 것은 (1)양이 아니다와 (2)음과 양이 구분되었다는 것을 말한다.(태극도설) 그

리고 원초적으로 분석성 analyticitas은 동kinesis과 정stasis의 구분과 함께 시작된다. (Plato: Sophist)

그래서 부정의 애매성을 제거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방법은 '확정된 범위내의 보집합'으로 한정하는 것이다. 벤의 그림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A)^{\wedge}(X)$: the complement of A with respect to X.

(도표 3) cf. Set Theory (Vaught)



'어떠한 주어진 원소도 음이다'라고 하면서도 '모든 원소가 음이지 않다'고 할 때는 우선 '어떠한every'과 '모든all'의 특별한 성질 때문에 이 두 명제가 양립 가능함을 괴델은 말하였다. (Omega-Widerspruch; Goedel) 여기서 '어떠한', '모든', '않다'가 결부되어 발생하는 애매성을 넘어선 비결정성은 자연 언어의 문제라기 보다는 집합론으로 해명될 수 밖에 없는 논리적인 문제이다. (Entscheidungsproblem)

IV. 문장 부정과 동사 부정의 경우

일상 언어로의 한글틀 말하고자 할 때는 구체적인 발화 상황에 고려되어야만 하는 문맥이 없는 뜻의 확정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과 표현 완전성의 원리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고 볼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문맥이 고려되기 이전의 영의 문맥에서의 뜻은 발화된 언어 현상에서 발견된 언어 표현에서는 사실상 없다는 의미에서 애매성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문맥이 확정되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아야 진다. 우리가 표현 완전성을 받아 들인다면 이러한 입장을 받아 들이지 않을 수 없게 한다.

그래서 표현 완전성을 받아 들일 수 있다면 문장 부정과 동사 부정이 완전히 구분되어 표현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문맥에서 분리된 언어 표현에서의 문장 부정과 동사 부정으로 확정할 수 없는 이유는 문맥에서 분리되었다는 것이 주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을 지지하기 위하여서는 문장 부정과 동사 부정이 적절히 나타난 표현을

우리가 확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어야 한다.

- 1. a. $(\exists x) \{ [\text{지 } x. \text{왕 } x. (y) (\text{왕 } y \rightarrow y=x)] . -\text{대 } x \}$
- b. $-(\exists x) \{ [\text{지 } x. \text{왕 } x. (y) (\text{왕 } y \rightarrow y=x)] . \text{대 } x \}$ [2:263]

- 2. a. 지금의 불탄서 왕은 대머리이다.
- b. 지금의 불탄서 왕은 대머리아니다.
- c. 지금의 불탄서 왕은 대머리이지 않다.
- d. 지금의 불탄서 왕은 대머리가 아니다.
- e. 지금의 불탄서 왕이 대머리인 것은 아니다.
- f. 지금의 불탄서 왕이 대머리라고 하는 것은 틀렸다.
- g. 지금의 불탄서 왕이 대머리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 h. 지금의 불탄서 왕이 대머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1)의 문장 부정과 동사 부정의 한글 표현을 (2)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합리적인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음을 받아 들일 수 있다면 문맥과 표현 완전성의 위의 논의를 Speech Acts(Searle) 받아 들일 수 있을 것이다.

V. 초월 부정과 기술 부정의 경우

실제의 문맥 속의 발화는 같은 서술 동사이나 그 언표내적 힘의 다름에 따라서 같은 부정사가 기술적이라기 보다는 수행적인 용법인 경우들이 있다(Austin, Searle). 그래서 우선 초월적 부정을 기정의 범위 속의 술어에 의하여 기술된다고 상정된 것의 모순 개념이 그 부정된 술어의 보집함으로 나타내어 지는 것이 아닌 것들로 말할 수 있다. [2:267]

- 3. a. 나무에도 못 대고 돌에도 못 댈다. (이 희승: 국어대사전)
- b. 나무도 아닌 것이 돌도 아닌 것이... (고시)
- c. 離邊非中 (원효)
- d. 죽도 밥도 안된다.
- e. 죽지도 살지도 못 한다. (이희승 같은 책)
- 4. a. 민규만 벌을 서지 않았다. [2:267]
- b. 둥근 사각형은 있을 수 없다. (Prior, A.)
- c. 먹은 파탄 색이 아니다. (Prior, A.)

(3)은 부정이 주어 집합의 보집함을 지칭 또는 서술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거의 '가도 -가도 아니'라는 형식의 것을 열거하여 본 것이다. 이러한 부정의 사용은 '거절'이나 '거부'로 보아서 단순히 기술적이 아니라 는 의미의 초월 부정이라고 하였다.

4.a.에서는 민규만 별을 서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술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아니나, 민규만 별을 썼다는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말하나 부정이 곧 참이 아님만이라면 좋으나 순수한 논리적인 의미에서 아닌 수사학적인 의미에서 불만족스러울 뿐이다. 4.b와 4.c에서는 이러한 측면이 더욱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특히 4.b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부정적 사실'의 문제를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는 동물이 있고 식물이 있듯이 있는 것이 있으니 없는 것도 있다는 잘못된 추리가 있을 수 있다.

(도표 4) 존재론

유 -----생물 ----- 동물-----인간-----남
 무 무생물 식물 금수 녀

태극 -----음----- 소음
 . 대음
 . 양----- 소양
 . 대양
 무극

VI. 부정의 분배 법칙

부정을 언어 표현된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면 긍정적으로 제시된 부분이 한정되어 있어서 제시된 것만은 주어지나 그 명제를 구성하는 의소(형태소)들 중에 어느 것이 어긋났는가하는 의문은 당연하다. 논리적으로는 선언적인 기술된 내용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다시 일상 언어로의 한글 사용에서는 논리적인 답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언어 심리 때문에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데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법칙은 어쩔 수 없을 것 같다. 스토아철학자들이 문장 부정에서 '가가 음이다'의 부정이 '가가 양(비음)이다'가 아님을 말하는 것이 부정의 분배 법칙을 술어에 적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문장 형성속의 모든 논리적 연결들에 분배되는 부정 운용사들은, 문장 부정인 한,

전체 문장의 부정 즉 부정의 범위가 전체 문장 ($\neg(x_i)$)이고 단위 의소에 이 부정을 분배하는 것은 분배 법칙 (de Morgan's Law)에 의한다. (2:264) 그래서 1.a의 부정의 분배 법칙은 다음과 같다.

- 5.a. $(x) - \{ [\text{지 } x. \text{왕 } x. (y) (\text{왕 } y \rightarrow y=x)] \text{대 } x \}$ 1.a의 양화 부정 법칙
- 5.b. $(x) \{ - [\text{지 } x. \text{왕 } x. (y) (\text{왕 } y \rightarrow y=x)] \vee \text{대 } x \}$ 5.a의 de Morgan
- 5.c. $(x) \{ [\text{지 } x. \text{왕 } x. (y) (\text{왕 } y \rightarrow y=x)] \rightarrow \text{대 } x \}$ 5.b의 Stoa 부정 분배
- 5.d. $(x) \{ [(\neg \text{지 } x) \vee (\neg \text{왕 } x) \vee (\neg (\text{왕 } y \rightarrow y=c))] \vee \text{대 } x \}$ 5.c의 de Morgan

위에서 보인 것은 문장 형성 과정에서의 구접속사들에 부정의 분배를 명시화한 것일 뿐이다. 이것들은 이치 일반 명제 계산과 같다는 것도 쉽게 알 수 있다. 이러한 명제 내부의 부정과 결부된 논리적 형식이 구문적 분석에서도 발견되어 진다. [2]

VII. 결어

이 글의 원래의 의도를 생각하지 않고 몇개의 언어 사용의 실례를 살펴 본다.

- 6.a. 죽기는 정승하기 보다 어렵다. (이 희승:국어대사전)
- b. 죽어 석잔 술이 살아 한잔 술만 못하다. (이희승 같은책)
- c. 죽은 놈의 콧김만도 못하다. (이희승 같은책)
- d. 죽은 정승이 산 개만 못하다. (이희승 같은 책)

여기의 '어렵다'는 쉽다의 반대 개념이고 '못하다'는 '중지 못하다' 또는 '더 낮지 못하다'로 보아져서 협의의 부정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긍정적이라기 보다는 '부정적'인 진술인 것만은 분명하다.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데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성공적인 의사소통에 저해요소라는 의미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은 벌써 지적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언어 생활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있는 그대로를 전달하고자 하는 원초적인 욕구일 것이다.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 참되고져 하는 가날프도록 인간다운 태도라고 하겠다. 나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그렇게 분명히 딱 꼬집어서 말할 수 없으면서 말을 하고 보니 잘 못 말한 것 같은 경우에 쉽게 의지하는 것이 또한 부정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아니다', '못하다', '틀렸다' 등이 절대로 참인 것을 추구하려는 젊은이들에게서 들을 수 있

는 말 들이다.

그래서 마침내 얻은 것이 분명히 딱잡아 말할 수 있었으면 좋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없다는 데에(무극이태극) 이르고 만 것을 어찌할 수 없는 것 같다.

참고문헌

[1]이 환목 "부정표현 '아니'의 통사범주와 그 의미" 어학연구 18-1 1982
139-155

[2]Oh, Choon-Kyu "On the negation of Korean" 어학연구 7-2 1971 45-66

[3]Lee, Hong Bae "On the negation in Korean" 어학연구 7-2 1970 33-59

[4]_____ "Problems in the description of Korean Negation" 어학연구 8-2
1972 60-77

[5]Jee, I.Y. and Lee, I.H. "Semantic Ambiguity of Korean Negation" Proceedings of
The Korean-US Bilateral Workshop on Computer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ognitive Science 1991

한글 및 한국어정보처리
인지과학회 및 정보과학회 추계학술발표회 용 9/12/1991'